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인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73-5254 (사무실) 77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주현절 후 제2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5. 속죄하신 구세주를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은 냉소로 굳어지고, 우리 귀는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좁은 길을 걷기보다는 이미 익숙해진 넓은 길을 반성조차 없이 걸던 우리들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 번번이 악을 행한다고 탄식했던 바울의 고백이 여실히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공활을 베풀어주시옵시오.

주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의 뜻을 수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마음은 세과에 노출되는 순간 가뭇없이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말씀으로 깨우쳐주시고, 의로우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순명(順命)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약4:8 .....	인도자
♣ 교 독 문 .....	2. 시편2편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I. 유경순 집사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485. 어두운 내 눈 밝히사 .....	다함께
성경봉독 .....	I. 시84:1-7h .....	인도자
	II. 사30:18-26 .....	고광송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큰 길 걷는 사람 .....	김재흥 목사
	II. 스승의 목소리 .....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같이

헌신의 찬송 .....	85. 구주를 생각만 해도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늘 좋은 것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들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다함께 : 아멘, 주님. 이제 남과 같아지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생을 성실과 공경의 태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 비록 힘겹다 해도, 울면서라도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구역회/동호회	에베소서 강해(31)/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귄!	기도 : 최윤희 집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최인환 전도사 김기석 목사	박정숙 선생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백혜숙 권사

<b>1월</b>	영접위원	조병무 박창운	고사일 송양진	허정윤 최영선
	헌금위원	김철수 이인웅	김근종 곽혜자	배상순 문인옥

## 과연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는가?

누구나 일생에 한번쯤은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을 외쳐본 적이 있을 것이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도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누구든지 절대자를 원망하는 말이 절로 흘러나오게 마련이다.

가령 자신의 자식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하자.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온갖 방법을 모색하며 좋다는 약을 다 써보게 된다. 그런 후에는 절대자인 신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그런데 그 아이는 숨을 거두고 만다. 그때 부모는 하늘을 향해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신이 있는 걸까?”라며 울부짖게 된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하고 있다. 얼음처럼 차갑게 침묵하고 있다.

이 세상에는 이러한 경험,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만큼 절실하게 얼음처럼 차디찬 신의 침묵, 우주의 침묵을 느껴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침묵’이라는 말을 ‘정적’이라는 말로 바꾸어보자. 정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공허가 가져오는 정적이 있는 한편, 그 안에 너무나도 심오한 것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정적의 형태를 띠는 것도 있다.

쉬운 예로, 다도(茶道)를 하는 다실(茶室)에 조용히 앉아 보라. 다실 안은 귀 죽은 듯 조용하다. 그러나 이 고요함은 결코 아무 것도 없는 고요함이 아니다. 조금 과장한다면 우주가 그곳에서 무언가 말을 걸고 있지만 그 말이 우리들의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고요해 보이는’ 정적일 뿐이다. 이것은 다도를 배우는 다인(茶人)이라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불행과 고통, 모순 등을 만났을 때 절대자를 찾기도 하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과 정적이 결코 아무 것도 없는 공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그 언어를 쉽사리 깨치지 못해 ‘고요함’으로 느껴질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대지는 못할 것이다.

양드레 말로(Andre Malraux)의 저서 중에 <<침묵의 소리>>라는 작

품이 있다. 이 제목은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침묵이란 반드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침묵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무언(無言)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나의 작품 <<침묵>>도 ‘침묵’ 안에 숨어 있는 목소리를 듣는 것, 그 안에 숨겨진 징표를 발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에 대한 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신을 갖게 된다. “과연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는가?”라고 절규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고 있고 우리의 구체적인 소망이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해서 그 종교가 참되고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거나 암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지만, 도대체 그것이 종교의 본질과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예수는, 징표를 보여야만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된다고 개탄한 적이 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징표와 기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가 행한 기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교했으리라.

신불(神佛)의 지혜는 우리들의 인식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

나는 예전에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세 번에 걸친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병으로 인해 내가 얻은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때로는 내가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었나 하는 생각까지 한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고 눈앞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 그 병이 내게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과연 신이 존재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의 다음 단계는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자세가 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그러한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죽을 때가 되면 죽어야 한다”라는 성현의 말과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예수의 말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 ■ 마/음/으/조/읽/는/글

###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앉아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해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다만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기쁨과 환희로 가득할 때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랜터 윌슨 스미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최인환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이광용 형인순 노용래 차혜심 윤주원 최윤선 홍순구 안홍숙 박옥순  
안정숙 김기석 김희우 박정오 장민숙 김재흥 최희영 김춘려 윤정덕  
구성실 김철수 유명남 조병무 송양진 한완식 임정자 윤석철 장혜숙  
방문성 박혜경 강인식 김정숙 권혁순 박혜경 조관행 홍선희 김창원  
정지은 이한림 김명희 구명자 고사일 최영선 김준호 곽혜자 박애순  
백묘현 백승민 유명숙 이봉옥 임창선 정완수 김재광 최종원 최숙화  
김정길 최명동 김용길 최영혜 배삼순 윤수진 임 영 정경례 이정규  
이인섭 김혜권 이유선 방극숙 윤미경 권채영 박시내 박영희 이건화  
방 민 김지호 김지윤

### 월정헌금:

노미향 조항신 하현철 최성애 박창운 허정윤 이지훈 하정석 이명희  
김현영 정원석 김명순 안길상 이형숙 유증희 이재문 문복순 황경순  
김순복 전영웅 김수연 김남종 오복순 문금석 박병구 이광섭 정두리  
황원순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김종문 지명주 김정섭 김성자 김미순  
김영한 이희균 이정은 서정순 임종길 김남홍 류건형 조병주 고숙이  
이동은 이갑재 박순성 송의섭 이봉배 배부례 전영자 조순덕

### 감사헌금:

백묘현 김용길 최영혜 김순복 백혜숙 한상의 정영선 정완수 김재광  
최윤희

땅이 어떻게 식물을 기르고  
식물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열매는 어떻게 돌이켜 짐승을 먹여살리고  
하늘은 어떻게 빛과 공기를 품고  
공기는 어떻게 새들을 품는지  
그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어두운 자가 누구냐?  
—빙겐의 성녀 힐데가르트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4 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구역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지하 친교실에서 구역회가 열립니다. 구역회원들은 꼭 참석하여 주십시오.
3. **동호회** : 동호회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십시오.
4. **환경부 모임** : 오늘 오후 1시부터 교육관에서 환경부의 첫 모임이 있습니다. 녹색교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실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 **아름다운 원로 모임** :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이고 오후에는 남산 타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6. **임원교육** : 새롭게 임원이 되신 이들은 물론이고 기존의 임원들까지도 동참하는 임원교육이 다음 주일(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육관에서 실시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7.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삭회가 17일 오전 10시 <예수마을교회>에서 열립니다.
8. **반주자** : 최미선 씨가 찬양대 반주자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봉사해주신 안홍숙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9. **신앙실천** :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수첩이나 노트에 옮겨 놓고 깊은 묵상의 자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점심 식사 : 故 노정숙 권사님의 가족들이 권사님의 1주기를 추모하여 교우 여러분께 점심을 대접합니다.

\* 식당 봉사 : 베들레헴 속

\* 헌화 : 김재광 권사 (어머니 10주기)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